

## 대학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

정병헌\*

<차례>

1. 고전문학교육 논의의 전제
2. 고전문학을 문학으로 바라보기
3.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 바꾸기
4.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고전문학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현실을 진단하는 여러 시각 중, 고전문학을 문학으로 보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문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고전문학을 문학으로 보아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가 지금까지의 교육 현장에서 실종되었다는 것이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 전제이다. 그 결과 상상력의 고양이라는 문학교육의 목표도 고전문학교육에서는 기할 수 없게 되었다. 문학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은 현대문학에 미루고, 문학 외적인 내용으로 고전문학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글의 독해에 있어 중요시되는 주제 중심의 접근과 함께, 독자와의 문학적 교감이라는 문학 독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본질적 접근 현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고전문학 연구에 있어 작가와 작품을 둘러싼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의 편중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현상은 작가와 작품, 세계, 독자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문학 교육은 작가와 작품에 반영된 세계의 이해가 그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현대문학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결과 작품에 대한 접근보다는 작품 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학 수업

\*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독자와의 교감에서 작품은 완성된다는 문학의 원리가 교육의 현장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제어** 고전문학교육, 상상력, 문학적 교감, 문학의 본질, 작품 중심의 교육

나는 원칙에 대하여 토론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 아득한 지식의 숲에 들어가 학자들은 범속한 현학주의에 타락한 채 방황하고 있으며, 편협한 이념에 집착하여 교사들은 천박한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정체되어 있다. 이론은 이론 자체를 위한 심심풀이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에 봉사하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에 관한 일 치고 교육에 무관한 것은 없는 법이다.  
<김인환, 『문학교육론』의 머리말에서>

## 1. 고전문학교육 논의의 전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고전문학 교육을 논의함에 있어 두 가지의 전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는 문학이란 일상적인 글쓰기와는 구별되는 또 하나의 문화라는 사실이다. 흔히 문학적 언어와 과학적 언어는 지시적이고 개념적인가 아니면 내포적이고 함축적인가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일상적 언어에 비하여 조리가 있고 개성적이라는 점에서 문학적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문학이란 여타의 글쓰기와는 구별된다는 것을 문학 이해의 초기 단계에서 배우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사실은 너무도 명백한 일로 인정하여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실용적인 언어와 문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문학 수업의 기초 과정

1) 한계전 외, 『문학의 이해』(민지사, 1987), 18-21쪽.

에서 현실의 언어와 문학의 언어가 구별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였지만, 그러나 실제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반복 학습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에 놓이는 수필은 논설까지를 포함함으로써 문학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sup>2)</sup> 급기야는 문학이 문자행위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로 규정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상상력의 소산인 문학의 독서는 당연히 일상적 독서 방법을 원용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의문을 바탕으로 우리는 고전문학이 문학이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전제에서 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전제하고자 하는 것은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에이브럼즈는 문학의 구성 요소를 우주(universe)와 작품(work), 예술가(artist), 청중(audience)으로 설정하였다.<sup>3)</sup> 이를 우리 식의 관점으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세계를 반영하는 작자, 그 구체적 실상인 작품, 그리고 이를 또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향유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바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문학 연구는 서구적 방식의 문학 연구 수용을 통하여 본 궤도에

2) 일상의 글에서 문학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수필은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필을 통하여 일상의 글은 문학적 기교를, 그리고 문학은 일상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생생한 활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수필은 일상의 현실과 상상의 허구라는 두 축의 중간에 서서 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장르가 된다. 정병현, 「수필의 교수·학습방법-그 당위와 현실」, 『문학 교수·학습방법론』(삼지원, 1998), 262쪽.

3) Abrams, *The mirror and the lamp*(Oxford University Press, 1971), p.6. 이 네 범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문학 이론을 그는 각각 모방론(mimetic theory), 효용론(pragmatic theory), 표현론(expressive theory), 존재론(objective theory)으로 불렀다.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구의 문학 연구에 대한 태도를 우리의 것과 비교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서구 문화의 두 양상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유형화된다는 점에서 세계의 반영인 문학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두 문화는 인간을 중심으로 놓느냐, 신을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 신과 인간이 수직적 관계에 놓인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중세의 경직된 사고는 신 중심의 이념을 집중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바로 문학의 정치한 연구는 성서의 창조자 중심적 해석을 본뜬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문학의 연구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작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공급자 중심적 해석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성서의 일 자 일 획도 변용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근본주의자들의 논리와 작가 중심의 문학 연구가 대세를 이루는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작가 중심의 문학 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이러한 서구의 흐름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4)</sup>

고전문학이 문학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고전문학을 대하는 기본이 문학 아닌 것을 대하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나 현실은 지나치게 문학을 문학 아닌 것으로 경사하여 바라보지는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할 필

4) 이것이 반드시 서구의 영향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때,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전 비평에서도 이러한 작가 중심의 문학 향유는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인시화』의 첫머리는 작가의 기상을 작품 이해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평문으로 시작하고 있다.(무릇 임금의 문장 기상은 반드시 보통 사람의 문장 기상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 — 우리 태조의 잠저 때 지은 “맹맹이넝쿨 휘어잡고 푸른 봉우리 오르니 암자 하나 높이 흰 구름 속에 누워 있네. 눈앞에 펼쳐지는 저 세계가 내 땅이 된다면 초월 강남인들 어찌 용납지 않으리.”는 그 넓고 큰 도량을 말로써 형용할 수 없다.) 다만 현대 문학 연구에 있어 서구 문학 연구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할 뿐이다. 장홍재 편역, 『동인시화』, 학우사, 1982), 39쪽 참조할 것.

요가 있다. 그리고 고전문학의 교육이 어느 특정한 요소에 편중되어 이루어짐으로써 문학에 대한 총체적 시야를 가로막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sup>5)</sup>

## 2. 고전문학을 문학으로 바라보기

고전문학을 문학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문학이 언어예술이며 허구와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독자와의 대면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존재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전문학과 관련지어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문학이 독자와의 대면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고전문학이 문학일 수 있고, 또 고전일 수 있는 까닭은 결국 독자와의 대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실제의 기록이 아니라 있을 법한 일을 작가가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전달한다. 그러나 실제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독자에게 있어서는 그것과 허구의 차이가 변별되지 않는다. 한 인물의 실제적인 모습과 행위도, 먼 후일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모르게 되는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학이 추구하는 허구의 의미는 무질서한 듯이 보이는 현실의 것을 질서화 한다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5) 물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고전문학 교육의 현실 진단과 전망을 이러한 두 가지 관점으로 제한하여 살피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대학의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반드시 연구자나 교사로 그 미래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자체의 문제로 한정하여 살피는 것은 예상되는 다른 문제의 제기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이나 허무함일 수 있는 술한 일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 따라서 작가가 아무리 현실을 그대로 묘사했다고 하여도, 그것은 이미 유기적 질서화를 도모한 결과라는 점에서 허구적 산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허구는 전달의 의도에 적합한 것만으로 사태를 압축하고, 그 의도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제거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 또한 선택과 배제라는 문화의 일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질서한 현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삼라만상은 각각 자신의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이니, 만약 그것이 질서화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그 질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작가는 그 나름대로 무질서해 보이는 현실의 질서를 발견하여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발견된 질서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독자는 작자에 의해 발견된 질서를 보면서, 자신에게는 없었던 (사실은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자신도 새로운 질서를 찾는 작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독서를 통하여 우리는 삶의 영역을 확대하고, 자신의 소양을 살찌우게 된다.<sup>6)</sup>

문학 작품에서 사실이나 현상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넓은 의미에서 상상력이라고 한다. 작가가 발휘하는 상상력과 독자의 상상력이 서로 어울리고 맞아 돌아갈 때, 문학은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결국, 독자가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작품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이 스스로의 통찰과 관조에 의하여 자기를 확인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6) 정병현, 「문학의 감상과 삶의 거리」, 『국어교육연구』 1(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1994), 186-189쪽.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무한정으로 넓고 깊은 체험을 하기는 어렵다. 우선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어디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체험하기 어려운 일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작품을 읽음으로써 현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인공이 겪는 체험 속에 자신을 투영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한다. 이처럼 문학 작품은 우리들의 체험을 넓혀 주는 구실을 하지만, 동시에 그 문학은 독자와 만남으로써 자신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학의 언어는 예술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일상의 언어와 구별된다. 문학은 상상력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진 실용문과 구별되는 것이다. 본고사라는 이름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용인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이 시대의 광풍을 몰고 온 논술은 그 글의 발단과 구성, 그리고 효용성이라는 점에서 실용문을 대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에서의 신입생 선발의 한 방식으로 도입된 논술고사는 그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시문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논술에 앞서 제시된 글의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논술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확한 독해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글을 쓴 필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 주제의 파악이다. 우리는 독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실용적인 문장에 있어 이 환상은 통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독서의 지도가 주제의 파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필자에 의해 이미 확보된 주제라는 보물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문학은 독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그 의미가 부여되는 문화의 산물이다. 문학은 '천의 얼굴'을 내면에 감춘 채로 독자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독자와 대면하면서 그에 합당한 자신의 모습을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문학은 독자의 상황에 따라 스스로를 변용시키는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다. '살아 있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읽은 <데미안>과 대학생이 되어 읽은 <데미안>은 같은 <데미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용문의 독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주제 파악이 문학 독서의 처음과 끝이 되어서는, 그 문학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논의가 고전문학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어느 순간 훌쩍 벗어버리고 만다. 그러한 이유를 고전문학이 가지는 범위의 포괄성에서 찾기도 한다. 우리는 선인들이 향유하던 모든 문학 형태를 고전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고전인 문학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고전이란 일차적으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저작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고전문학을 서구 문학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근대문학 이전의 문학, 즉 전통시대의 문학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문학에 영향을 주는 전범으로서의 고전이 아니라, 다만 지난 시대의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고전으로 부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고전문학을 우리와는 다른 시대, 다른 환경 속에서 선인들이 향유하던 역사적 형태일 뿐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고전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현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 아니

라, 선인들이 향유하던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박물관에 보관된 선인들의 유품이 그 고유의 효용을 잃고 연구와 관찰의 대상만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고전문학도 그 효용성을 잃고 과거 한 시대의 향유물이었다는 유품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우리에게 직접적인 효용은 없지만, 그래도 선인들이 향유하던 문학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은 문화인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인 듯이 생각하기도 한다.

고전문학을 단순히 지난 시대의 문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문학의 이해는 우리 시대 문학의 이해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고전문학을 표기하고 있는 언어는 우리 시대의 것과는 다른 방식, 예컨대 한자나 향찰, 또는 옛글자들이다. 그 언어 장벽을 뛰어넘기 위하여 고전문학 교육의 현장에서는 향찰의 해독과 한문의 번역이 문학 자체의 향유보다 우선하기 마련이다. 또는 언어의 변천 상황을 가르치는 것으로 <구운몽>의 수업을 충당하기도 한다. 나아가 당시의 신분제도나 남녀 차별에 관한 토론을 벌임으로써 <춘향전>의 교육이 완결되기도 한다.

또한 고전문학 교육의 현장에서 보다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고전문학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의 배경적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 일처럼 보인다. 신라의 향가와 고려시대의 시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작가들의 계층적 성격은 어떠한가? 그리고 각각의 작품들은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대체로 이러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고전문학사라는 이름으로 고전문학 교육의 현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이다.<sup>7)</sup>

7) 이러한 교육의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대학의 고전문학에 대한 교육 내용이 그대로 중등학교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은 고전문학이란 지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고전문학을 지나간 시대의 것만으로 인식할 때, 필연적으로 현재의 것은 과거의 것이 가지는 결점을 보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진화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과거의 문학과 현재의 것을 비교하여 현재의 것은 과거의 어떤 점을 개선한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고전문학은 우리 앞에 그 남루한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죽어 시체가 되었음에도, 그 형해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포장을 상실한 채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 개성적인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는 현대시와 비교할 때 시조나 가사는 도식적인 주제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고전소설은 권선징악이라는 천편일률적인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또한 사건의 전개가 필연적이지 못하고 우연의 남발로 이루어져 있다. 또 꿈이나 허황한 일들이 빈번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저해하고 있다. 현대문학은 이러한 고전문학의 결함을 해소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고전문학에서 배우는 것은 과거의 한 시대에 우리 선인들이 향유하였던 문학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차 자료로서의 지식 항목이 대부분이다. 현대문학이 고전문학을 극복하면서 나타난 것이라는 인식에 머무는 한, 고전문학에서 문학의 본질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은 사실상 시간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과거의 것을 극복하고 그 결함을 해소한 현대의 문학에서 문학 본연의 것을 배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문학 교육이 살아 있는 문학의 현장에서 벗어나 사물화된 장식품을 대하듯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고전문학 교육은 분명 현대문학 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sup>8)</sup>

8) 고전문학의 교육을 교육의 관점에서 문학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문학에서 교육으로

고전문학이 이 시대에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장식품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에게는 고전이 오늘의 현재와 긴밀한 연관을 맺는 경우도 있다. 유리장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살아 숨 쉬는 대상으로 보거나, 분명한 것은 고전문학이 문학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이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문학 이외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상을 올바르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그 문학을 위해서나, 또는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를 황폐화시킬 뿐인 것이다.<sup>9)</sup>

실사 그것이 고전문학을 잘 대접해서 하는 일이라 해도,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해체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것의 총체적 이해를 위하여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받는 ‘고전’이라는 명예는 결코 올바르게나 값진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고전으로서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그것은 문학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한 대상인 것이다. 언어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나 시대 배경을 알기 위한 자료로 고전을 활용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또한 문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

나아가는 방식으로 분류하여 그 장단점을 규명한 논의가 있어 문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었다. 허왕욱, 『고전문학교육론』(보고사, 2003), 72-96쪽을 참조할 것. 여기에서 제시된 고전문학교육의 목표는 전통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형성, 문학능력의 신장, 문학적 상상력의 고양이다. 특히 교육의 방법으로 제시한 작품중시와 학습자 중심 교육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 9) 정병현, 『한국 고전문학의 교육적 성찰』(숙명여대출판국, 2003), 20-30쪽 참조.  
고전문학 교육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고민은 김홍규, 『한국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306-321쪽에 잘 나타나 있다.

### 3.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 바꾸기

우리의 고전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렇게 오래 된 것이 아니다. 김태준의 고전소설에 대한 연구나 조운제, 이병기의 고전 시가에 대한 연구로부터 기산한다면 100여 년의 역사도 갖지 못했다. 이 짧은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5권으로 이루어진 『한국문학통사』를 갖게 되었고, 또 세계문학사를 쓰겠다는 포부를 내보이기도 하였다. 가히 대단한 발전과 숨 가쁜 행진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짧은 역사가 그렇게 꼭 짧은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우리 고전문학의 주변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강토는 식민지의 동토에서 자주 독립국으로 바뀌었다. 또 삶의 모습도 참 많이 바뀌었다. 마땅히 그 삶의 질도 바뀌었고, 따라서 사유의 방식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물론 변하지 않는 관점으로 본다면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소동파식 논법을 수용한다 하여도, 그 변화의 폭이 과거의 전통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누구나 용인한다.

문학은 세계를 기반으로 하여 또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창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문학이 현실의 변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학이란 세계와 세계를 반영하는 작가와, 그 구체적 실상인 작품, 그리고 이를 또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향유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문학의 연구와 교육은 이러한 네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합당한 배려 속에서 균형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작가 중심적 시각 위에서 형성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창조자 중심, 공급자 중심의 관행이 확립되었고, 그 관행에서의 일탈은 엄청난 시련을 불러왔다는 과거의 경

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조자에 대한 용해가 가져올 수 있는 역사적 재앙은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구자는 작가의 연보 작성과 사생활 복원에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작가에 대한 자료의 발굴 하나가 엄청난 연구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고, 연구자는 작가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부스러기 하나라도 수집하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그래서 <금오신화> 연구가 김시습의 생애 검토로 끝날 수 있었고, <홍길동전>은 허균의 인생 역정과 관련지어 설명되었다. 심지어는 작품이 작가를 설명하는 보조적인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문학이라고 하여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작가와의 친밀성에 기초한 글이 살아있는 연구로 평가되는 것이 현대문학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작가의 생애가 작품 속의 인물 형상화와 깊은 관련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창작론의 중심에는 항상 작가가 놓여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가장 성실한 이해는 작가 이상 일 수 없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어떤 시인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대하여, 자신은 그런 의도로 작품을 쓰지 않았다고 연구자를 질타하였다. 연구자는 속절없이 자신의 작가에 대한 무지를 부끄럽게 생각할 뿐이었다.

작품이 세계를 반영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진실이다. 작품 속의 사건이나 인물이 허구적인 것이라 하여도 현실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이루어진다는 점, 따라서 작품 속의 시대나 사회에 대한 통찰은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이 세계를 모방하거나 반영한다는 사실은 문학이 허구의 산물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용인될 수 있다. <양반전>의 이해는 이를 가능하게 한 제도의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그 제도에 대한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몰려나왔던 1980년의 봄을 어떤 사람들은 민주화를 위한 대장정으로

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부정적 상황으로 보아 억압하였다. 그것이 꼭 어느 일방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의 왜곡으로 규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장님과 코끼리>의 우화는 총체적 성찰의 바탕 위에서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보다 깊은 속의 의미는 인간이란 그렇게 한정된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인간에 대한 비극적 인식에 놓여 있다. 우화에 등장하는 장님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불구적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품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맹목적 신뢰와 경시는 작품을 설명하는 객관적 원리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 그리고 배경이 되는 이념에 대하여 연구자는 시시콜콜히 파악하고자 한다. 역사학의 성과도 점검해야 하고, 마르크시즘의 대강도 이해해야 한다. 또 정약용이나 박지원의 실학에 대한 논의도 참고해야 한다. 문학 교수의 연구실은 그래서 항상 수많은 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어떻게 사회학이나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과 전공의 지식을 겨룰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문학 연구자는 참 주눅들 대상이 많다.

이런 질곡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문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연구의 중심에 놓았을 때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작품을 둘러싼 세계와 작가로부터 해방되어 작품 본연의 구조를 연구하는 일은 따라서 문학 연구자만이 가장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문화사를 서술하는 역

10)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고전문학 교육이 작품론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견해는 본 연구의 논지와 그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소설사적 지식 또는 정보에 대한 부분은 줄이면서 소설이 가진 의미를 깊이 천착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강의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는 결국 작가론의 최소화와 작품론의 극대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병설, 『대학 고전소설 교육의 현실 방향 과제』,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월인, 2005), 404-405쪽을 참고할 것.

사학자는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문학 연구에 상당한 정도 주눅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학 연구가 세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던 시대의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는 문학 연구자의 도움 없이 문화사를 서술할 수 있었지만, 문학의 구조 자체에 바탕을 둔 문학의 이해는 문외한이어서 문학 연구자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신비평이 기존의 관행에 바탕을 둔 문학 연구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까닭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이 독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은 문학 수업 첫머리에서 강조되는 사항이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문학 향유의 주체로 부상한 독자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독자의 다양한 해석이 체계화라는 학문의 성격과 위배된다는 비판 속에서도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바로 문학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원론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다양한 작품 향유가 문학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성을 묶는 새로운 원리의 발견이야말로 더욱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향유자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문학을 소수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문학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 실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권위 있는 해석에 어정쩡하게 따라가던 독자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독립적으로 하나의 사유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래 전에 문학 연구의 틀을 세운 김태준이나 조운제, 그리고 이병기에게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다. 이는 지금의 고전문학 교육 현실이 그들의 문학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물론 국지적으로는 뼈대와 같았던 그들의 입론을 충분한 양으로 살피웠지만,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망령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물리학의 대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뉴턴은 아인슈타인으로, 그리고 소립자 물리학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것은 현재의 기반이

아니고, 현재를 이루게 하고 자신은 역사적 사명을 마쳤다. 누구 하나 뉴턴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전문학은 여전히 그들이 주장했던 민족주의나 리얼리즘, 그리고 작가 중심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이유를 우리는 흔히 인문학의 본래적 속성이라 하여 자랑스럽게 말하곤 한다.<sup>11)</sup>

#### 4.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

한 교수는 자신의 전공과목인 ‘한문학개론’이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폐강되었다고 대단히 분개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인문정신의 위기로 이어져 참 오래 동안 울분을 서로 교환하였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이란 결코 시장의 물건처럼 달리는 대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 피교육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교수 개인의 문제이고,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교육자로서는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아 폐강된다는 것은 대단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른이 보면 참 젊은이는 버릇없고, 못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미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것일 수밖에 없다. 어른들도 그 이전의 어른의 눈에는 또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형편없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미래일 텐데, 그래도 우리의 역사는 발전해 왔다. 다른 것은 몰라도 평등을 향한 역사의 길은 분명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하고, 어울리는 사람도 달라야 하는 사회에서

11) 작품 자체에 대한 관심은 신비평 또는 분석비평이 도입되면서 작품 자체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었지만, 사회 및 사상과의 관련 속에서 작품을 이해하자는 주장이 다시 주류를 형성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현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조동일, 『국문학 연구의 방향과 과제』(새문사, 1993), 179쪽.

누구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일을 하는 근대 사회로 바뀌어 온 것은 그 버릇없는 젊은 사람들의 반동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성의 것만을 묵수 하였다면, 그러한 역사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문화 행위는 필요에 의해서 발전한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실용성을 결여한 것은 문화의 전수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를 실용적인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문학은 어디에 쓸 물건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고전문학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구해야 할 필연이다. 하다못해 국가고시의 필수과목으로 넣어야 그것은 필요한 과목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웅색한 지점에서 고전문학의 필요성을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익이나 정약용 등은 똑같은 학문이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야에 가치를 두었다. 그들의 그러한 전환은 실용정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것이 진부하고 도식화된 과거의 학문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 시대의 고전문학도 또 다시 그들의 변화의 기반이었던 실용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조선 이래로, 아니면 신학문이 시작된 이래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어 정말 천편 일률적인 한문학개론도 실질적인 내용의 것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약이나 생활, 산업과 관련되는 한문 전적의 번역 등, 교과 담당자의 괴로운 사색의 과정이 교과목의 운영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한문학의 변화를 구체적 작품의 나열을 통하여 개관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현명하고 약삭빠른 학생들은 그것이 가지는 효용성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12) 김기형 교수는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전망으로 획일적인 교재에서의 탈피, 강의 대상 작품의 확대, 작품 해석에 있어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다양한 현대 문화 장르와의 비교와 재창작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고전 교육의 실용성 확보라는 점으로 요약된다. 김기형, 「대학 고전소설 교육의 현황과 전망」,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월인, 2005), 424-430쪽 참조.

고전문학은 우리에게 있어 문학의 원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신문학이 서구문학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바탕은 엄연히 고전문학의 전통 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시대 문학의 창조에 고전문학은 귀중한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상록수>의 박동혁과 채영신의 형상화는 그 어디에서도 아니고 고전소설에서 으레 등장했던 ‘재자가인형’의 반복이다. 우리에게 유난히도 익숙한 모습으로 그들이 다가왔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인물 형상의 전통적인 원리를 심훈이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혁의 모습은 지도자의 외모에 합당하도록 우람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영신 또한 강렬한 소명의식을 지닌 전사이면서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미모를 갖추고 있어 애뜻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또 당연히 결합할 수밖에 없는 두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졌으나 술한 장애가 닥치고, 이를 극복해 가는 재자가인형의 전형적 구조와 이상적인 남녀의 모습은 어김없이 <상록수>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학은 인간생활의 구체적이고도 총체적인 인식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문화 방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고전문학은 그 당대는 물론이고 현재의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문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춘향전>에서 문제 삼았던 신분 차별의 문제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한 화두로 남아 있다. <제망매가>에서 아련한 그리움으로 형상화되었던 동기간의 애뜻한 사랑은 지금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원적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고전문학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료는 그렇게 한없이 넓은데, 그 재료를 다루는 학자들은 지금까지 그 재료를 지극히 한정적인 것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누구나 문학을 영위하였고, 그것을 즐겨 기록으로 남겨 놓았던 선인들의 문학 향유 방식은 오늘에 되살려야 할 소중한 문화이다. 그러니 고전문학의 영역에서 즐겨 표현론을 가르치고, 글쓰기의 원리를 추출하여 이 시

대의 글쓰기에 기여하고, 독서의 원리, 나아가 사람 사는 방식으로서의 문화론과 접맥하는 것은 고전문학 본연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대에 합당한 문화 방식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을 줄 알았던 선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교육함으로써 이 시대의 우리가 또 이 시대에 합당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고전문학 교육의 본질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신을 포함하는 주변에게 남김없이 기여하고 베푸는 것이야말로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며 우리 자신을 풍족하게 살찌우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김기형, 「대학 고전소설 교육의 현황과 전망」,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5, 407-431쪽.
- 김상욱, 『문학교육의 길 찾기』, 나라말, 2003, 1-306쪽.
- 김성진, 『문학교육론의 쟁점과 전망』, 삼지원, 2004, 1-274쪽.
- 김용성, 『문학교육방법론』, 이회, 2000, 1-204쪽.
- 김인환, 『문학교육론』, 평민사, 1979, 1-112쪽.
- 김중신, 『한국 문학교육론의 방법과 실천』, 한국문화사, 2003, 1-361쪽.
- 김홍규, 『한국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학교 출판부, 1-355쪽.
- 서거정(장홍재 편역), 『동인시화』, 학우사, 1982, 1-263쪽.
- 정병설, 「대학 고전소설 교육의 현실·방향·과제」,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5, 393-406쪽.
- 정병헌, 「수필의 교수학습방법-그 당위와 현실」, 『문학 교수·학습방법론』, 삼지원, 1998, 251-275쪽.
- 정병헌, 「문학의 감상과 삶의 거리」, 『국어교육연구』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1994, 177-190쪽.
- 정병헌, 『한국 고전문학의 교육적 성찰』, 숙명여자대학교출판국, 2003, 1-421쪽.
- 정재찬, 『문학교육의 현상과 인식』, 역락, 2004, 1-369쪽.

제임스 그리블(나병철 역), 『문학교육론』, 문예출판사, 1996, 1-303쪽.

조동일, 『국문학 연구의 방향과 과제』, 새문사, 1993, 1-377쪽.

한계전 외, 『문학의 이해』, 민지사, 1987, 1-223쪽.

허왕옥, 『고전문학교육론』, 보고사, 2003, 1-387쪽.

M. H. Abrams, *The mirror and the lamp*,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1-406쪽.

K C I

## ABSTRACT

## The Education of Classical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and the Future Prospect

Chung, Byung-Heon

This study is aimed for examining the present education of classical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and presenting ways to solve the problem. In many ways of examining the situation, we are focused on the view of the justifiability that classical literatur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literature itself and establishment of various ways to examine the literature. The basic concept of this study is that the undoubted essential statement -classical literatur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literature -has been missing in our education field until these days.

Consequently, there is no doubt that we couldn't meet the goal to enhance imaginative power in the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field. The essential content of literature education was mostly shifted to the contemporary literature field and there has been only outward of literature education i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ver the essence of reading literature which is the consensus among readers within the approach of focusing the main subject, which is important in daily reading.

In studying classical literature, it is considered as an overemphasis of studying writers and literary works. The literature is consist of a writer, literary work, the universe and reader. The literature education until now was mostl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writer and the thought in literary works. It is also found in contemporary literature area, therefore the literature education was mostly for delivering outward knowledge of the literature rather than approaching the literature itself.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ver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literature, that is the literary work is completed with the interest of the literary work and consensus among readers.

**Key Words**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imagination, consensus in literature, the essence of literature, education focusing on literary work

논문투고일 : 2007. 3. 30

게재확정일 : 2007. 5. 4

K C I